

사회

# 오늘 '근로자의 날' 일부 어린이집 휴원 맞벌이 부부 "애들 어떡하지"

## 보육료 지원 불구 휴원 강행...직장인들 불편

“근로자의 날(5월1일)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주부 이모(36)씨는 세살배기 아들 때문에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기로 했다. 아이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기로 결정한 탓이다. 어린이집측은 약속하듯 휴원 안내문만 보냈을 뿐, 광주에서 휴일 보육료를 지원하러 아이를 맡겨달라는 설명은 없었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광주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이날을 공식 휴일로 정해 쉬고 있다.

시와 광주시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을 배려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회원들에

게 문을 열도록 권고했다. 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부모들에게 휴일 보육료(1일 보육료의 100~150% 한도)를 지원키로 했다.

그럼에도 일부 어린이집이 휴원을 강행해 맞벌이 부부의 고충이 예상된다. 이들 어린이집은 돌봐야 할 원생이 소수이거나, 교사들에게 휴일근무 수당 등을 별도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휴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2)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주부 김모(32)씨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가정통신문을 받고, 딸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기로 했다”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양모(여·36)씨도 “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에서 휴일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아이를 보내지 말라는 식으로만 통보했다”며 “맞벌이 부부가 죄인이나”고 꾸짖었다.

그러나 대부분 어린이집들은 이와 달리 문을 열기로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간 대체근무를 택하거나 당직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을 운영할 방침이다. 근무 교사에게는 평일 수당의 150%를 지급키로 했다.

광주어린이집 총연합회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감안해 회원 어린이집들이 문을 열기로 뜻을 모았다”며 “그러나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기 때문에 일부 휴원하는 곳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총 1205개로 국공립은 137곳, 가정 등 민간보육시설은 모두 1068곳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사회운동사 100년 정리

## 전남대 5·18연구소 등 3곳서 연구 용역

광주지역 사회운동사 100년을 정리하는 연구가 시작된다.

전남대 5·18연구소와 사단법인 광주연구소·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 3개 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2015년 1월까지 '민주장정 100년, 지역사회의 운동' 연구 용역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전남대 5·18연구소는 지난 30일 광주시와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생, 노동, 교육 등 영역별로 정리해 책자로 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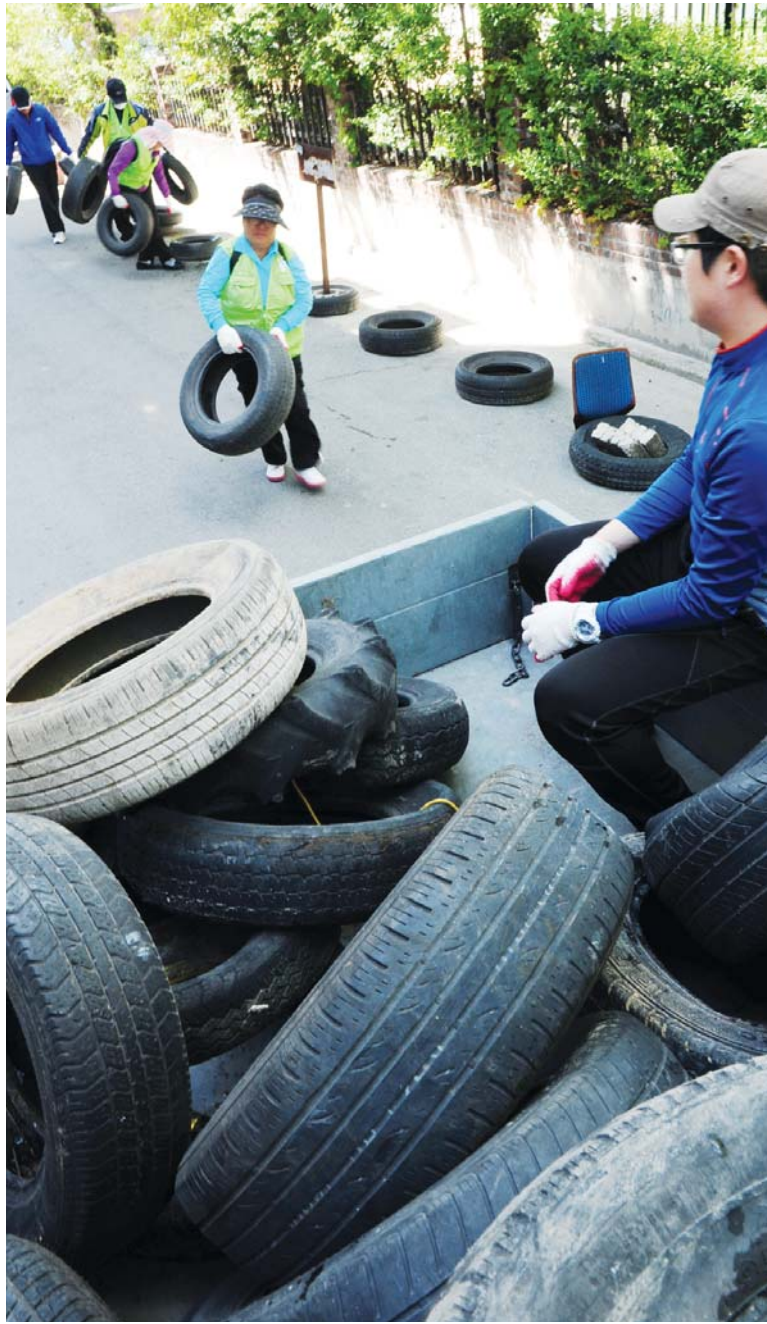
5·18연구소와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학혁명부터 현재까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데

앞장서고 불의에 저항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초석을 놓았던 지역민들의 민주장정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민주·인권·평화를 이끌어 온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5·18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이 광주지역의 사회운동사 100년을 정리하고, 지역과 지역민에게 광주의 의로운 역사를 되돌려 주어 광주가 인권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불법 주차장은 안돼요” 광주시 북구 공공근로원들이 지난 30일 신안동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방치한 페타이어와 강풍 등을 수거하고 있다. /나명기기자 mjna@kwangju.co.kr

# 수학여행비 지원은 좋지만...

## 광주교육청 초등 10만·중학생 15만원씩 “한도내 써라” 학교 불만

광주시교육청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이유로 초·중학생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면서 지원 금액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보낸 ‘긴급공문’에서 “수학여행비 지원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모든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지원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해준 돈 안의 범위에서만 수학여행의 일정과 코스를 잡아 실시

하라는 의미다. 교육청은 초등학생(6학년)에게 10만원, 중학생(2학년)에게는 15만원씩을 예산에서 지원했다. 대상 학생 4만3000여명에 소요 예산은 55억원이다.

시 교육청이 공문을 보낸 것은 일부 초·중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수학여행비를 지원액보다 다소 넘기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2에 대해서는 수학여행보다는 6~7만원 수준의 수련회가 주를 이뤘다.

시교육청은 올해 일부 중학교가 학부모 부담을 2만원 가량 추가한 17

만원선에서 수학여행을 추진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다.

광주시내 한 중학교 관계자는 “평소에 먹던 백반을 돈 많은 사람이 사준다고 하니 거기가 내 돈 조금 없어 김치찌개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게 하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교육청의 관계자는 “가급적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학여행비를 지원금액 내에서 집행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남아 여행객 세균성이질 감염 급증

동남아시아 여행이 증가하면서 세균성이질에 감염된 입국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질병관리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1년 세균성이질로 신고된 총 399명 가운데 해외에서 감

염된 것으로 파악된 212명을 분석한 결과 208명(98.1%)이 아시아 지역에서 감염됐으며 이 중 동남아에서 감염된 비율이 82.5%를 차지했다.

동남아 감염자의 경우 인도가 2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캄보디아 19.

8%, 필리핀 17.9%, 베트남 9.0%, 인도네시아 8.5%, 중국 8.0% 등의 순이었다. 발생 시기는 해외 여행이 많은 7~8월과 1~2월에 각각 38.2%, 18.9%로 가장 많았다.

해외 유입 세균성이질에서 분리된 균종으로는 시겔라 소네이(Shigella sonnei)가 65.6%, 시겔라 플렉스네리(Shigella flexneri)가 20.3%였다.

/연합수스

#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1분 해질 19시 18분 달뜨기 13시 53분 달짐 02시 06분

**오늘 날씨**

오전에 비가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지역	구름	최고/최저
광주	흐리고 한때 비	17/20°C
목포	흐리고 한때 비	15/19°C
여수	흐리고 한때 비	17/17°C
나주	흐리고 한때 비	17/19°C
완도	흐리고 한때 비	16/19°C
구례	흐리고 한때 비	15/20°C
강진	흐리고 한때 비	16/19°C
해남	흐리고 한때 비	16/19°C
장흥	흐리고 한때 비	16/19°C
순천	흐리고 한때 비	15/19°C
영광	흐리고 한때 비	16/20°C
진도	흐리고 한때 비	16/19°C
전주	구름많음	14/24°C
군산	구름많음	14/23°C
남원	구름많음	14/23°C
육산도	흐리고 한때 비	13/16°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경고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경고	보통	낮음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6/24	16/25	14/25	13/24	12/24	14/25

# 광주·전남 내일 오전까지 봄비

지난 30일 광주의 최고기온이 25.4도까지 올라가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가운데 한차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강수량은 광주·전남 내륙 지역은 5~20mm,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20~40mm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2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으며,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평년(최저기온 7~14도, 최고기온 20~24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함평 영화학교 학생 초청

광주지법, 법원 체험행사

광주지방법원이 1일 오전 지체장애인 특수학교인 함평 영화학교 학생 95명을 초청해 법원 체험행사를 갖는다.

이날 영화학교 학생들은 지대운 광주지방법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판부와 함께 법정을 둘러본 뒤 아동용 법복을 입고 기법촬영도 할 예정이다. 지 법원장 등은 이들 장애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하고 영화도 관람한다.

광주지법 교영석 공보관사는 “평소 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체장애 학생들을 초청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법원은 사회의 소외계층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함평 영화학교는 지난 1984년 인가를 받고 설립돼 함평·영광·무안·나주·장성 등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교육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60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원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 제1회 진도개의 날 기념 2012 진도개 페스티벌

2012. 5. 3(목) ~ 5. 6(일) 4일간

※ 진도개의 날 선포식(축하공연) : 5. 3(목), 14:00

(제20회 우수진도개 선발대회 5. 5 ~ 5. 6)

※ 출진견 접수 : 5. 5(토), 13:00 ~ 18:00

진도개테마파크(진도읍 동외리 진도개사업소 일원)

<p><b>첫째날(5월 3일 목요일)</b></p> <p>진도개의 날 선포식(축하공연), 진도개 경주, 진도개 공연, 전국 진도개 어릴리 대회</p>	<p><b>둘째날(5월 4일 금요일)</b></p> <p>진도개 경주, 진도개 공연, 전국 진도개 묘기대회, 진도군립예술단·(사)진도연예예술인협회 가수공연</p>	<p><b>셋째날(5월 5일 토요일)</b></p> <p>제20회 우수진도개 선발대회(예선), 진도개 경주, 진도개 공연, 전국 진도개 묘기 대회</p>	<p><b>넷째날(5월 6일 일요일)</b></p> <p>제20회 우수진도개 선발대회(결선), 진도개 경주, 진도개 공연</p>
---	--	---	---

**상시행사 (5. 3 ~ 5. 6)**

진도개 찰흙 공예, 진도개 디지털 사진 콘테스트(즉석 포토존), 진도개 조각퍼즐 맞추기, 진도개 사진 전시, 진도개 전시, 진도개 페이스페인팅, 진도개(강아지) 체험, 셀매치형, 진도개 그리기

주최 | Jindo 진도군 | 주관 | 진도개페스티벌추진위원회 (061-543-2109)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진도개명견화사업단